

음악 정의적 반응의 평가를 위한 요인 구성 타당성 연구

김 향 정*

차 례

- I. 서론
- II. 음악 정의적 영역
 - 1. 음악 정의적 영역의 요소 및 분류
 - 2. 음악 정의적 영역의 연구 방법 : 언어적 측정
 - 3. 용어 정의
- III. 정의적 반응 평가 도구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 2. 평가 도구 작성
 - 3. 자료 분석 방법 및 과정
- IV. 결과
 - 1. 구성 타당도
 - 2. 내용 타당도
 - 3. 신뢰도
 - 4. 유용성
- V. 요약 및 논의

I. 서 론

행동주의 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사이에 인간의 행동 영역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

*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사.

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인간의 행동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크레스윌과 블룸, 메시아(Krawthowal, R., Bloom, S., & Masia, B.)에 의한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Affective domain'은 그들의 이전 저서인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과 함께 교육적인 입장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분야에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그것은 특히, 철학적 근거 및 분류 체계, 정의적 영역의 개념, 그리고 연구와 평가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연구와 교육자들에게는 물론, 음악교육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안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설명하는 정의적 영역의 구성 요소라 함은 "하나의 느낌이나 감정, 수용과 거부 정도 -서술적으로 표현될 때는 흥미, 태도, 관조, 가치, 일련의 감정적 상태들 혹은 편견-"이며, 정의적 영역의 목표는 "선택된 현상에 개인의 특성과 양심의 질이 단순히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보다 더 복잡한 단계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내적으로 지속적인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¹⁾

그러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영역의 개념 정의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정확한 구분, 또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 연구자나 교육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와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²⁾이어서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정의적 영역의 개념이나 평가 등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을 크레스윌과 그의 동료들은 "인지적 영역 대 정의적 영역의 행동", 즉 "공적인 현상 대 사적인 현상"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성취, 경쟁, 결과물과 같은 공적인 것(인지적)에 인정받을 때는 상 혹은 장학금을 받거나 또는 신문이나 언론 매체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태도, 가치, 개성 등과 같은 것(정의적)은 사적인 것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개인의 허가나 혹은 자발적인 발로 아니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자들이나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흥미, 태도, 혹은 특성 발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성적을 내는 데 있어 이러한 정의적 영역을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 현상을 평정(appraisal)할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³⁾고 덧붙인다. 정의적 영역이 사적인 현상이건, 그를 평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소홀히 해왔던 정의적 영역이 인간 행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면 그러한 정의적 영역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해하며, 그에 대해 평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모든 교육자들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어떤 학문이나 특정한 분야가 이 세 영역 중 한 영역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는 말할 수

1) R. Krawthowal, S. Bloom. & B. Masia.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s: Affective domain. N.Y.: Longman. 1964. pp. 7.

2) D. Misenhelter. & J. A. Lychner. "A Comparative Study of Aesthetic Response: Erik Satie's Trois Gymnopédies and Frederic Chopin's Ballade in A-flat".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24(2). 1997.

3) R. Krawthowal, S. Bloom. & B. Masia.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s: Affective domain. pp. 7.

없다. 다만 이 세 영역 중 어떤 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가, 어떤 능력에 더 의존하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전적으로 이 세 영역의 상호 작용에 의존한다. 굳이 세분하자면, 음악적 개념이나 이해는 인지적 영역에, 연주 능력은 거의 심동적 영역에 의존하며, 음악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정의적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 때,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음악 미적 경험의 결과가 그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긍정적 태도 형성, 음악을 느끼고 음악에 반응하는 미적 경험과 같은 요소는 인간의 정의적 영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음악 미적 경험을 통한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이 정의적 영역의 함양에 기여한다는 확신 아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 규명과 교육 방안 수립의 문제 등이 다른 교육계와 마찬가지로 최근 음악학자, 음악교육자들의 연구에서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음악 교육계의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성취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음악 정의적 영역'의 개념 정의 및 구성 요소와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언어에 의한 측정 방법인 '정의적 반응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악교육에서 정의적 반응의 이해와 평가를 위하여 정의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들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 문항들은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추출한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 세 요인으로 산출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세 요인이 평가도구의 타당한 요인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요인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 때,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확인적 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세운 세 요인 구성이 부적절할 경우, 보다 적합한 요인 모형을 찾기 위하여 네 요인, 다섯 요인의 구성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여 평가 도구를 완성시켰으며, 완성된 평가 도구의 각 요인에 따른 신뢰도 및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룰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정의적 반응의 평가를 위한 도구의 요인 구성은 타당한가
- 둘째, 각 요인 안에 포함된 측정 내용은 타당한가
- 셋째, 각 요인의 신뢰도는 유의미할 만큼 높은가
- 넷째, 정의적 반응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써 유용한가

II. 음악 정의적 영역

1. 음악 정의적 영역의 요소 및 분류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은 blooms의 분류(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 의한 인간 행동 영역 중의 하나로, 신념, 태도, 가치, 특성 등이 포함되고, 그 목표는 "선택된 현상에 개인의 특성과 양심의 질이 단순히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보다 더 복잡한 단계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내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에 있다. 크레스울, blooms의 정의적 영역의 분류는 수용을 첫 단계로 하여, 반응(행동 참여와 관련되는 것-mood, emotion), 가치화(하나의 사물, 사건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 조직(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가치를 통합하는 것)의 순서이며, 내면화(가치 시스템에 기초한 생활 양식이 특성 지워지는 것-취향)가 마지막 단계로 정의적 목표와 관련 하여 조직과 평가의 교육적 목적에 도움을 준다.

음악 교육적 입장에서의 "음악 정의(Musical Affection)"라 함은 주로 감정, 느낌, 미적 반응, 선호도, 음악에 대한 태도, 음악에 대한 주의력, 취향 등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키스 스와닉(Keith Swanwick), 밀러(Miller, F.), 맥물란(McMullen, P. T.), 에이블스(Abeles, H. F.) 등은 정의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류 및 개념적 정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 정의나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맥물란은 "음악 정의적 영역"에 대한 표현으로 '음악 정의적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안에는 '감정', '정서', '선호', '느낌(feeling tone)', 그리고 '미적 반응'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며, 정의적·심미적 행동도 서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⁴⁾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의적 행동과 심미적 행동 사이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분류를 보이는 듯하다. 키스 스와닉(1973)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반응을 '미적 반응'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생리적 접근', '심리적 접근',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심미와 인지 접근'의 3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⁵⁾ 또한, 밀러는 '정의적 반응'에 대한 분류를 '선호도', '평정(Appraisal, 감정적 질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으로 감정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 수사적인 측면)', '주관적인 개입'⁶⁾으로

4) P. T. McMullen. "The musical experience and affective/aesthetic respons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2nd. Lawrence. K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1996. pp. 395.

5) Keith Swanwick. "Musical Cognition and Aesthetic Response".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6(93). 1973.

6) 밀러는 '주관적 개입'을 "이해도는 낮지만, 직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반응과 인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감정에 대한 분야로 간주"하였고, "음악가들에게는 관심 있는 분야이지만, 음악교육에서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나누고 각각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의 방향과 그 측정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였고,⁷⁾ 에이블스는 미적 경험과 정의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의 개념 구별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라도시와 보일(Radocy R. E & Boyle F. D)의 감정, 심미반응, 기분/특성 반응, 흥미, 가치관, 향수, 선호, 태도, 취향 등의 내용에 불안(anxiety)과 들뜸(arousal)의 개념을 추가하였다.⁸⁾

뿐만 아니라, 리치너(Lychner, J. A.)의 정의적 영역의 용어에 대한 인지 실험 연구⁹⁾에 의하면, 피험자들의 50% 이상은 '아름다움(beautifulness)', '느낌(feeling)', '감정(emotion)' 등을 '심미(aesthetic)'와 동의어로 보거나 거의 유사한 단어로 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Affective'라는 어휘가 정의적 혹은 정서적으로 해석이 되는가 하면, 그 정의적 영역의 반응에 대한 기술(記述)은 위의 학자들의 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미적 반응(Aesthetic Response) 또는 정의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이 혼용되어 쓰이고, 반응과 경험의 관계에 있어 경험 뒤에 반응이 온다고 정의되지만, 반응과 경험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또한, 리치너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감정(emotion)과 느낌(feeling), 심미(aesthetic)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실험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본유의 특성에 기인하는 듯하며, 결국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연구자 개개인이 결정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크레스웰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표 1>은 앞서 살펴본 음악 정의적 영역의 대한 학자별 용어 정의 및 분류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음악 정의적 영역의 대한 학자별 용어 정의 및 분류

학 자 별	용 어 정 의	분 류
맥클란	음악 정의적 체계	preference/hedonic tone(수용/거부 판단) mood/feeling tone(활성화), aesthetic response(지각된 활동력)
키스스와닉	미적 반응	심리적 접근, 생리적 접근, 심미와 인지접근
밀러	정의적 반응	선호도, 평정(appraisal), 주관적 개입(subjective involvement)
에이블스	미적 반응과 정의적 반응 혼용함	미적 반응, 기분/감정 반응, 선호도 반응, 취향 반응 불안(anxiety)과 들뜸(arousal)

- 7) R. F. Miller. "Affective response". In R. Colwell(Ed.).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Schirmer Books. 1992. pp. 414.
- 8) H. F. Abeles. & J. W. Chung. "Responses to music".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2nd. Lawrence. K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1996. pp. 285.
- 9) J. A. Lychne. "An empirical study concerning terminology relating to aesthetic response to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2). 1998.

본 연구에서는 'Affective Domain'을 정의적 영역이라는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음악 정의적 영역을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 미적 반응 네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이 때, 반응 특성이나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적 반응과 미적 반응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의적 반응에는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를, 미적 반응에는 예술 작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느낌, 인지나 지각 등을 포함시켰다. 그 관계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연구자의 정의적 영역 분류 방식

성격 구분	음 악 정 의 적 영 역	
	정 의 적 반 응	미 적 반 응
구성 요소	감정, 취향, 가치/태도	즉시적 예술느낌, 인지, 지각
반응 특성	간접적, 표면적	직접적, 내면적
반응 의존	과거경험/기억, 지속적	현재, 일시적
측정 방법	언어, 관찰 방법	생리적, 심리적, CRDI와 같은 도구 사용

여기에서 미적 반응은 실제로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그 음악 작품에 대한 인지와 지각을 포함한 어떤 느낌의 양상이다. 따라서, 측정 방법은 생리적이나 심리적인 실험, 음악을 들으면서 실시간 반응을 측정하는 CRDI¹⁰⁾와 같은 방법이 적절하다. 음악적 자극이 사라지면 미적 반응도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의존하는 미적 반응에 반하여, 정의적 반응은 작품이나 작곡가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 또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속에서 형성된 가치나 태도 등 음악 전체의 사변적(思辨的)인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과거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언어나 관찰 측정 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반응을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하였다고는 하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미적 반응은 정의적 반응에 포함되며, 서로 교차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상존 한다. 예를 들어, 미적 반응은 미적 자극이 있는 동안의 일시적인 것이라고 성격 규정했지만, 그 일시적인 반응이 드러나기에는 과거의 많은 음악적 경험과 기억들의 축적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미적 반응의 의존은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이며, 일시적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0) 'CRDI' 란 (Continuous Response Digital Interface): Florida State University의 음악 연구소에서 개발한 도구로, 음악이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동안에 피험자의 반응을 저장하고 기록하며, 분석할 수 있다. 컴퓨터 안의 software, 반응을 나타내는 주로 조이스틱이나 마우스 역할을 하는 장치와 그 장치의 반응을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interface가 그 주된 구성이다. 미적 반응 검사에 있어, 언어적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제거한 하나의 테크놀로지로 음악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달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Madsen, C. K., 1997).

2. 음악 정의적 영역의 연구 방법: 언어적 측정

라도시와 보일은 그들의 저서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에서 음악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 방법을 크게 4 가지로 분류하였다. 생리적 측정, 언어적 측정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음악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 방법이 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인간과 예술과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철학 미학적 접근 방법이 있는가 하면, 1970년 이후 심리적인 인간의 배경에 실험적인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실험 미학적 측정 방법이 그 분류이다. 그러나, 음악교육에서 학생들의 정의적·미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법은 전문가들의 연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경제적 지원의 한계, 동시 다발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다수 피험자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의 의미가 일반 연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학교라는 장면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한정 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크게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언어적 방법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¹¹⁾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구별되고 동시에 연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며, 언어적인 방법만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는 정의적 영역의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이다. 종류로는 형용사를 사용한 느낌 묘사나 체크리스트, 형용사 군집, 반대어를 이용한 어의적 차이, 에세이, 질문지 등이 있다. 형용사 묘사 방법이라 함은 음악의 느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모아 놓고 피험자의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에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윈(Schoen, E.)과 게이트우드(Gatewood, E. L.)의 논문이 초기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2 명의 여성 피험자에게 10 곡의 음악적 자극을, 테스트 조건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상황으로 나누어서 실험하였다. 각 곡에 체크된 형용사의 빈도 수에 기초해서 연구한 결과는 "주어진 음악적 자극은 분명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상황이라도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¹²⁾로 나타났다. 또, 게이트우드는 35 명의 여성 피험자들에게 12 가지의 형용사 리스트를 주고 10 곡의 발췌곡이 불러일으키는 기분에 체크하는 실험에서 "Mood effects는 분명히 음악적 요소(리듬, 가락, 화성, 음색의 영향)에 의존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인라인(Heinlein, C. P., 1928)은 30 명의 음악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장조·단조 코드, 소리의 크기, 음역에 대한 반응을 형용사 리스트에 체크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소리의 크기가 화음보다 더 감정에 영향을 주며, 음역 역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었다. 따라

11) 연구자의 논문인 '정의적 영역의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참조

12) M. Schoen. & E. L. Gatewood.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nature of musical enjoyment". In M. Schoen (ed.), *The effects of music*. New York: Harcourt, Brace. 1927. pp. 131-183.

서, 그는 “주어진 화음 형태와 관련된 느낌 상태(feeling-tone)는 전적으로 지적 구별(변별)이라는 특별한 방식의 반응을 익힌 학습에 의존한다”¹³⁾로 결론 지었다. 히브너(Hevner, K.)¹⁴⁾는 음악적 반응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들의 기초로서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67 개의 형용사를 비슷한 의미에 따라 8 개 군으로 나누고 피험자에게 음악 발췌곡을 듣게 한 후 느끼는 기분을 하나의 형용사군에 체크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형용사군 체크에 있어 피험자들 사이에 어떤 일반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느낌 반응에 있어 다양한 음악적 요소(조성, 리듬, 빠르기, 화성, 가락, 음높이)의 영향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장조 모드는 happy, graceful, playful, 단조 모드는 sad, dreamy, sentimental, 고정적인 리듬은 vigorous, dignified, 흐르는 리듬은 happy, graceful, dreamy, tender, 복합적인 불협화성, 단순한 협화음, 올라가는 멜로디, 내려가는 멜로디 등에 대한 형용사적 단어에 의한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계속해서 1937년에는 느린 템포, 빠른 템포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명석함에 상관없이, 또 음악교육의 유무나 정도와 상관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¹⁵⁾하였다.

케펠소(Capurso, A.)는 기분 상태를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105 개의 음악적 자극으로 1075 명의 비전공자들에게 듣게 한 다음 반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51 개의 음악적 자극은 적어도 피험자들의 50%이상 같은 반응을 나타내었다.¹⁶⁾ 판스워스(Farnsworth, P. R.)는 히브너의 형용사군의 내적 일관성을 테스트하였는데, 그 결과, 몇 개의 군집들은 내적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그 씨클 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히브너의 형용사 50(8개 군)개를 10 개 범주로 보다 일관성 있게 나누었다.¹⁷⁾ 또 다른 연구로, 속첵(Sopchak, A. L.)은 553 명의 대학 2 학년생들에게 15 곡(클래식 5곡, 대중음악 7 곡, 포크송 3 곡)을 듣게 한 다음, 12 개 범주로 이루어진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응답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 때 자신의 기분 상태를 세 단계(즐겁다, 보통이다, 우울하다)로 나누어 함께 적도록 하였다. 현재 자신의 기분 상태를 ‘우울하다’에 답한 수험자들은 거의 sorrow, joy, calm, love, eroticism, jealousy, wonder, cruelty와 같은 형용사에 응답했으며 ‘즐겁다’에 답한 피험

13) C. P. Heinlein. "The affective characters of the major and minor modes in music". The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8. 1928.

14) K. Hevner. "Expression in music: A discussion of experimental studies and theories". Psychological Review. 42 1935.

_____. "Experimental studies of the elements of expression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8. 1936.

15) K. Hevner. "The affective value of pitch and tempo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9. 1937.

16) A. Capurso. "The Capurso study". In Music and your emotions. (New York: Liverright Publishing. 1952). pp. 56-86.

17) P. R. Farnsworth. "A Study of the Hevner adjective list".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2. 1954.

자보다 음악에 집중하였고 음악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반 스톤(Van Stone, J. K.)은 음악의 음질과 관련된 어떤 Mood 차이를 밝혀냈고,¹⁹⁾ 이어서 히브너는 8 개 형용사군의 Mood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8 곡을 발췌하여 같은 곡을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로 연주하였다. 감상 후 느낌 반응을 본 결과 음색에 따른 형용사 반응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용사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연구되어온 반면, 보다 최근에 어의적 차이에 의한 피험자의 반응을 도출해내는 또 다른 형태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본질적으로 이 기법은 반대되는 의미의 두 형용사를 5 급간 혹은 7 급간으로 나누어서 피험자의 관점, 인지, 또는 다양한 현상들의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특히, 이글(Eagle, Jr. C. T.)은, 현재의 느낌(기분) 상태가 느낌 반응에 영향을 주는가, 음악의 순서는 느낌 반응에 영향을 주는가, 비슷한 분위기의 성악곡과 기악곡은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는가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274명의 대학교 대학원 전공자를 대상, 20 개의 발췌곡(10 개의 성악곡: rock, folk, country-western, popular ballad, hymn, 10 개의 기악곡: jazz, march semiclassical, classical)으로 위의 기법(10 구간)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의 현재 느낌(기분)은 느낌 반응에 영향을 주나 음악의 순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기분 상태를 갖는다 해도 성악곡과 기악곡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 기법의 또 다른 지지자로 크로지어(Crozier, J. B.)와 맥물란을 들 수 있다. 또한, 오스굿(Osgood, C. E.)과 수시(Suci, G. C.), 그리고 탄넨바움(Tannenbaum, P. H.)의 정의적 반응의 측정을 위한 그들의 연구에서 이 기법이 다양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서술형 자기 보고서, 체크리스트, 설문지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방법적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 언어적 방법들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반응 요소가 모두 측정 가능하다는 면에서 그 타월함을 인정받았으며,²¹⁾ 적용과 분석적인 면의 용이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구성 요소의 반응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언어에 의한 관찰은 인지적 반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²²⁾ 왜냐하면, 정의적 영역이나 행동이 언

18) A. L. Sopchak.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s to different types of music, in relation to sex, mood, and other variables". Psychological Monographs, 69(11), 1955.

19) J. K. Van Stone. "The effects of instrumental tone quality upon mood response to music". In E. Schneider (ed.), Music therapy, 1959. Lawrence, KS: Allen Press, 1960.

20) C. T. Eagle Jr. Effects of existing mood responses to that mus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Kansas, 1971.

21) R. A. Cutietta.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nd preferences in music education". In Richard Colwell(ed.),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Schirmer Books, 1992, pp. 297.

22) R. A. Cutietta.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nd preferences in music education". pp. 298.

어로 표현되기 위해서 인지적인 반응 형태를 한번 거치면서 걸러지기 때문에, 정의적, 행동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바트렛(Bartlett, L.)은

과거에 음악적 요소들의 분별이나 지각에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가 언어적 표현에 의존하였다.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실험 설계는 피험자의 반응을 항상 음악이 끝난 뒤에 말이나 진술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은 음악적 특질이 이미 과거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회상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고 지적한다.²³⁾ 볼록(Bullock, W. J)도 마찬가지로, "음악 미적 태도 연구"에서

언어에 의한 측정은 실제로 음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상, 예언적인 측면이 강해서 음악에 대한 그들의 견해나 가치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억이나 상상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에 의한 측정은 자극으로서의 음악보다는 개념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태도 성향을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²⁴⁾ 마이어(Meyer, L.)도 "음악은 시간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그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미적 반응을 음악이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정확하게 집어내는 일은 어렵다."²⁵⁾고 함으로써 음악의 본질적인 측면 때문에 반응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듯 언어적 접근에 의한 반응 측정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생리적 접근 방식보다 교육에로의 접목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지·심동·정의 영역의 측정이나 평가에 고루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교사나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도구라는 점, 또한 자료의 해석 면에 있어서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평가의 많은 방법들(지필 검사, 실음 평가, 자기 평가, 감상문 등)중에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어떤 특정한 도구가 유용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적 영역 안에서 어떤 구성 요소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이 언어적 측정 방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호도 혹은 취향이나 태도 문제 등과 같은 사실이나 기술 즉, 개념적 음악 측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언어적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 악곡에 대한 개인의 '미적 반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때, 이 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음악이 끝난 뒤 과거가 된 음악을 회상

23) D. L. Bartlett. "Effect of Repeated Listening on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Affective Respons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4), 1973.

24) W. J. Bullock. "A Review for Measures of Musico-Aesthetic Attitud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4), 1973.

25) L. Meyer.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pp. 7.

해야 하고, 그것을 글이나 말로 답해야 하는 인지적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언어와 심미의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언어적 방법의 측정이나 평가가 정의적 영역의 전부를 설명한다고 하는 과신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 형태가 인지적·심동적 영역에 편중되었고, 이제는 이 세 영역이 고루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음악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주는 데 있어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그리고 비음악적 기준들에 보다 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²⁶⁾는 아이치슨(Aitchison, R.)의 주장과, "음악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음악 성취 평가에 있어 다각적 기준(multiple-criteria areas) 안에서 학생들의 태도를 고려해야 하며, 그 평가의 절차 안에서 이러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⁷⁾고 한 머피와 브라운(Murphy, K., & Brown, S.)의 주장으로 충분히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적인 요인의 측정이기 때문에 방해받아 왔든, 평정을 위한 적절한 평가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든 간에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즉 교육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평가의 중요한 분야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3. 용어 정의

1)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

Bloom에 의해 분류된 인간 행동 중의 하나로, 신념, 태도, 가치, 특성 등이 포함되며, 음악교육의 상황에서는 주로 감정, 느낌, 미적 반응, 선호도, 음악에 대한 태도, 음악에 대한 주의력, 취향 등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 정의적 영역 안의 요인을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 미적 반응,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2) 정의적 반응(Affective Response)

"느낌과 감정을 동반하는 반응으로, 음악적 자극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상호 작용함으로써 학습된 행동 결과"로 정의된다(Affective Response SRIG의 Newsletter). 우리 나라에서 'Affective'는 흔히 '정의적' 또는 '정서적'이라고 번역되며, 이 때, 정의(情意)의 사전적 의미는 '예술적 감정과 의지', '정과 뜻'이며, 정서(情緒)는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감정의

26) Randall Aitchison. "Student perceptions and preferences in multiple criteria evaluation systems".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20, 1993.

27) M. K. Murphy, & T. S. Brown. "A comparison of preferences for instructional objective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 1986.

나타남으로 기쁨, 두려움, 슬픔, 근심, 노염 따위, 표정이나 태도 등에 나타나거나 나타냄'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정의적'이라는 용어가 ARSRIG의 정의에 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의적 반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미적 반응(Aesthetic Response)

예술적 색채가 짙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 감정적 반응, 인지 능력, 느낌과 반응의 경험이 요구되며, 심리학적 측면과 연결된다고 정의된다. 이 미적 반응에 대하여 니터와 리머, 두 학자는 공통적으로 "미적 반응은 미적 자극에 대한 심리적 참여, 예술 작품 안에서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지각, 미적 자극 안에서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인지, 그것에 반응하는 느낌"으로 "와! 아름답다"라는 단순한 반응보다 훨씬 복잡적이라 하였으며, 미적 자극에 대한 즉시성 없이는 정의적 행동이 미적 행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적 반응과 정의적 반응을 구별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적 반응은 정의적 반응에 포함 관계이다. 다만, 미적 자극(음악)에 대한 즉시적인 반응,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의 지각, 그 지각과 개인의 감정의 융합한 뒤의 인지라는 과정, 이러한 특징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로 정의적 반응과 구별을 지은 것이 다를 뿐이다.

4) 감정 민감성

감정과 민감성이 혼합된 용어로, ARSRIG에 의하면 감정이란 '느낌의 상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이고, 민감성은 '인지적 혹은 정의적 두 영역에 작용하는 것으로 똑같은 감각적 자극에 남과는 다른, 일반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섬세한 식별과 뭔가 미묘한 느낌까지 인지하여 반응하는 것'²⁸⁾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감정 민감성은 예술 민감성과 구별하여 예술 교육의 질적 결과의 하나로 나타나는 음악 경험에 대한 느낌의 종류와 정도를 말한다. 즉, 미묘한 음악 예술의 음 현상까지 구별해내는 전문가 수준의 예술 민감성과는 구별되는 단순한 느낌의 상태에 대한 민감성으로 한정된 것이다. 이는 언어에 의한 반응 측정 도구의 한계 때문이며, 질적 깊이를 묻는 예술 민감성은 '미적 반응'에 대한 측정에서 보다 더 적절하다. 일반 음악교육의 지향점 중 하나가 일반 학생들의 예술 민감성을 기르는 것이고, 예술 민감성 이전에 감정 민감성이 길러져야 하며, 취향과 마찬가지로 감정 민감성은 음악교육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8)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3rd. Il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1997. pp. 273.

5) 음악 취향

흥미가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위한 방법론이자, 도구라고 한다면, 취향은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호도와 취향은 흔히 구별 없이 혼용되는데 ARSRIG에 의하면, 선호도는 "선택하는 하나의 행위, ~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는 것으로, 이전의 경험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자극의 이전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으며 가르쳐질 수도 없다." 반면에, "취향은 대조적인 음악적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의 태도, 음악 선호도가 지속된 상태"이다. 이는 선호도와 취향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짧은 기간(선호도)에서부터 오랜 기간(취향)의 연속선상에 나타난다."²⁹⁾고 주장하는 에이블스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ARSRIG에서 밝힌 선호도의 개념 정의 " ~ 이전의 경험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자극의 이전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으며 가르쳐질 수도 없다."는 설명은 확실한 이론적·실제적 뒷받침이 없는 한 교육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선호도나 취향이 정의적 영역의 하나이고,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내용 이나 반응이 선호도인지 취향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연속선상에 있는 두 가지가 어디까지가 짧은 기간에 해당되어 선호도이고, 어디까지가 오랜 기간으로 취향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선호도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또는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반면, 취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호도인가 취향인가를 구별짓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선호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취향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 개개의 현재 상태의 취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취향을 정의적 반응의 한 요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용어도 '취향'으로 통일하였다.

6) 음악 태도

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혹은 심리적 대상,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정신적 혹은 심동적 행동에 대한 성향을 일컫는다. 쿤(Kuhn, T. L.)에 의하면 "태도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형성되고 안정적이어서 그것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³⁰⁾

29) H. F. Abeles. "Responses to music". In D. A. Hodges (ed.).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Lawrence, K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1980. pp. 105-140.

30) T. L. Kuhn. "Instrumentation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ollege Music Society, San Antonio, Texas. 1979.

본 연구에서 음악 태도는, 음악 교과나 음악 예술에 대한 자세, 혹은 가치관에 대한 성향을 뜻한다. 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하여 현 상태를 이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쿤의 주장대로 태도 형성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해 어려서부터 바른 음악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이해될 때, 긍정적인 태도는 선호도로 이어져서 취향을 갖게 하고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무조건적으로 취향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결과로 형성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적 반응의 평가를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음악 태도가 사용되었다.

Ⅲ. 정의적 반응 평가 도구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 대상은 초 4, 6학년, 중 2, 고 1학년, 4개 학년으로, 서울, 중부(충청권), 동부(경상권), 서부(전라권) 4 지역에서 학년 당 한 학교, 한 학급을 표집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n=162), 6학년(n=143), 중 2학년(n=153), 고 1학년(n=141)으로 총 599 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역 분류로의 표집 의도는 되도록 다양한 성향의 응답치를 원함과 동시에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자료는 2002년 9월 ~ 12월에 수집되었고, 지역별·학년별 응답자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학년별 응답자 수

지역권	도시	학년	응답자수	지역권	도시	학년	응답자수
수도권	서울	초 4	34	동부권	대구, 김천	초 4	39
		초 6	40			초 6	33
		중 2	35			중 2	41
		고 1	35			고 1	38
중부권	청주	초 4	41	서부권	광주, 목포	초 4	48
		초 6	38			초 6	32
		중 2	38			중 2	39
		고 1	34			고 1	34

2. 도구 작성

정의적 반응의 이해와 평가를 위하여 정의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들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 문항들을 음악 정의적 반응의 내용으로 설정한 세 요인: (1) 감정 민감성, (2) 음악 취향, (3) 음악 태도로 분류하였다. 문항 구성은 총 74 문항으로 감정 민감성(19 문항), 음악 취향(22 문항), 음악 태도(32 문항), 기타(2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심리·미학적 연구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 수정, 보완하였고, 세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질문지 기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 점 척도(강한 긍정, 긍정, 중립, 부정, 강한 부정)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선입견에 의한 응답을 피하기 위하여 긍정문과 부정문을 섞어 사용하였다.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에서 느껴지는 음악에 대한 기쁨, 슬픔, 감동, 분노, 연상, 기대나 예상 등의 의미를 묻는 문항은 감정 민감성으로, 대중음악과 예술음악 혹은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에 대한 선호, 악기, 또는 음악 활동 종류에 대한 선호는 취향으로 분류하였다. 음악 교과에 대한 견해 및 태도, 음악 예술 태도와 가치관을 묻는 문항은 음악 태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문항 1(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과 2(음악을 듣고 나서 듣기 전보다 기분이 더 좋아졌다)의 경우, 지금 상태의 기분이 응답자들의 반응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 도구의 세 요인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성되었다. 이 설문지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문항	내	용	척	도*	요인 분류**
1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
2	음악을 듣고 나니 듣기 전보다 기분이 더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
3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E
4	음악을 들으면 더 화가 나고 참을성이 없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E
5	어떤 곡들은 옛날의 즐겁던 기억을 떠올려 나를 행복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E
6	때때로 음악이 너무 신이 나서 음악에 맞춰 뛰거나 춤을 출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E
7	음악을 들을 때 가끔씩 음악에 푹 빠져드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
8	음악을 들을 때 가끔씩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

문항	내 용	척 도*	요인 분류**
9	음악을 들을 때 가끔씩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
10	음악을 들을 때 기쁨의 환희를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
11	음악을 들을 때면, 그 음악의 이야기나 내용들이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E
12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
13	스포츠 게임과 같은 비슷한 활동들을 할 때, 음악은 나에게 힘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E
14	전에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고전음악은 따라 부를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E
15	전에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대중음악은 따라 부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
16	내가 음악을 따라 부를 수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E
17	풍부한 음악적 경험은 음악활동과 생활 전체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
18	익숙하지 않은 가락과 어울리지 않는 화음으로 이루어진 현대음악은 싫다	① ② ③ ④ ⑤	E
19	작곡가들의 작품에 따라 다른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E
20	고전음악은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E
21	나는 음악적 경험(개인레슨, 합창단이나 밴드, 오케스트라와 같은)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E
22	나는 음악교과로서 음악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23	음악수업에서 가창(노래부르기)시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T
24	음악수업에서 악기 연주하는 시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T
25	음악수업에서 음악 감상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T
26	음악활동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것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T
27	나는 대중음악이 고전음악보다 좋다	① ② ③ ④ ⑤	T
28	나는 음악교과서의 가창곡보다 유명 작곡가들의 연주곡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T
29	나는 한국 음악보다 서양 음악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0	나는 서양 악기보다 한국 악기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1	서양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현악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2	서양 악기 중에서,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3	서양 악기 중에서, 트럼펫이나 트럼본 같은 금관악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문항	내 용	척 도	요인 분류**
34	서양 악기 중에서,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건반악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5	서양 악기 중에서, 드럼이나 실로폰 같은 타악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6	한국 전통 악기 중에서, 단소나 피리 같은 목관악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7	한국 전통 악기 중에서, 장고나 소고 같은 타악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8	나는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T
39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T
40	나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음악 선생님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41	내가 용돈이 있을 때, 음악CD나 테이프 사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42	음악가들 중에서, 나는 작곡가보다 연주가들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T
43	나는 여성 음악가보다 남성 음악가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T
44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음악 또는 음악 수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A
45	음악 시간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음악 시간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A
46	내가 느끼기에 음악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A
47	음악 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A
48	학교 교과목 중에서 음악 시간이 가장 좋다	① ② ③ ④ ⑤	A
49	나는 음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A
50	음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숙제는 빠뜨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A
51	나는 음악 성적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A
52	나는 교과목 중에서 음악이 중요한 교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
53	가능하다면, 나는 음악 수업을 안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A
54	나는 음악 시간동안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A
55	음악 교과가 왜 학교 수업 안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A
56	인류에게 있어 음악은 중요한 문화 유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
57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
58	음악과 관련된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A
59	음악은 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
60	음악은 나와 다른, 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A

문항	내	용	척	도*	요인 분류**
61	음악활동을 같이 함으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62	나는 합당단, 밴드, 또는 그 밖의 음악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A
63	나는 연구할 줄 아는 악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64	나는 음악회에 자주 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A
65	나는 음악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A
66	내가 음악회에 갈 때면, 일반적으로 바른 자세로 관람한다		① ② ③ ④ ⑤		A
67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작곡가, 연주가, 성악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68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의 노래나 작품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A
69	나는 악기 연주나 노래부르기를 즐겨한다		① ② ③ ④ ⑤		A
70	고전음악 프로그램이 TV나 라디오에서 방송되면, 채널을 돌리거나 끈다		① ② ③ ④ ⑤		A
71	한국 전통음악 프로그램이 TV나 라디오에서 방송되면, 채널을 돌리거나 끈다		① ② ③ ④ ⑤		A
72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이 지루해서 음악과 관계없는 것이나 일들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
73	나는 녹음기나 오디오를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A
74	나는 TV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유명한 음악가들이나 음악관계 기사를 읽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A

* 5점 척도,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감정 민감성 : E, 음악 취향 : T, 음악 태도 : A

3. 자료 분석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의 방법은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으로,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장점을 갖는다. 요인 분석은 인간의 정신 능력, 특히 성격, 동기, 태도, 가치 및 생활 방식과 같은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과학이 추구하는 절약성의 원리를 가장 충실히 따르는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은 무수히 많은 관찰 변인들의 특성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효율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자의 정의적 반응이라는 행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고, 74 문항이라는 복잡한 변인을 단순화시키며, 복잡한 현상을 최소 단위로 개념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적 반응의 잠재적 요인으로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의 세 요인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 모형이 타당한가 또는 대체 모형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방법을 사용하였고, 세 요인 모형을 중심으로 네 요인, 다섯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요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 방법(PCA)과, 베리맥스(Varimax) 직교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설문지 문항 분석

위의 <표 4> 74 문항 설문지에 대한 599 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93 이고, 변수 쌍들 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Meyer-Olkin (KMO) 측도는 .889이다. 이 값이 적으면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며 .5 미만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 측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Sphericity)는 상관 관계 행렬이 단위 행렬이란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74 개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의 검정치가 12308.242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 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74 문항 설문지를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추출한 요인수는 19 요인으로 이론적으로 설정한 세 요인보다는 훨씬 많은 수를 보여준다. 이는 맥캘럼(MacCallum)의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산출되는 것이 요인 분석의 심각한 문제"³¹⁾라는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인의 수를 되도록 줄이면서 설명력을 높이는 것에 있고,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요인 모형을 찾는 것이라 하겠다.

2) 세 요인 모형

주성분 분석법으로 3 개의 요인을 추출하도록 지정하였기 때문에 아이겐값에 상관없이 세 번째 요인까지만 추출하였다. 많은 문항들이 공유치와 요인 부하량이 낮고 '요인적으로 순

31) R. MacCallum. A comparison of factor analysis programs in SPSS, BMDP, and SAS. Psychometrika. 48. 1983. pp. 223-231.

수³²⁾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공유치(Communality: h^2)가 .3 이하인 문항은 변인간의 선형 조합이 극히 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각 요인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5이하)이나 요인간 상관 관계가 높은, 즉 순수하지 못한 문항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아래 <표 5>의 결과를 얻었다. '공유치, 요인 부하량이 .5이상, 상관 관계가 대체적으로 순수함'의 조건을 만족하는 문항들로부터 추출된 세 요인 모형의 전체 설명 변량은 46.221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요인별로는 <요인 1>이 약 27%, <요인 2>가 약 10%, <요인 3>이 약 7%를 설명하고 있다.

회전된 성분 행렬의 결과는 <표 6>과 같은데, 이 결과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쳐 74 문항

<표 5> 세 요인 최종 공유치와 변량값

문항	공유치(h^2)	*	요인	아이겐값	설명 변량값	누적 변량값
X47	.678	*	1	7.455	27.610	27.610
X45	.657	*	2	2.762	10.231	37.841
X48	.533	*	3	2.262	8.379	46.221
X49	.502	*				
X22	.457	*				
X46	.460	*				
X53	.452	*				
X51	.412	*				
X52	.397	*				
X54	.410	*				
X23	.385	*				
X44	.359	*				
X8	.615	*				
X9	.520	*				
X7	.542	*				
X5	.484	*				
X10	.479	*				
X57	.458	*				
X11	.345	*				
X56	.331	*				
X33	.556	*				
X32	.542	*				
X31	.472	*				
X34	.468	*				
X35	.333	*				
X36	.339	*				
X37	.329	*				

32) 한 요인에 높게 부하된 문항은 다른 요인에 낮게 부하되어야 '요인적으로 순수한' 문항이 된다.

에서 재구성된 수정 모델이기 때문에 요인 부하량은 높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순수하였다. 산출된 요인을 개념화하기 위해 요인 명칭을 <요인 1>은 음악 태도로, <요인 2>는 감정 민감성으로, <요인 3>은 음악 취향으로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세운 세 요인 모형의 요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태도 요인<요인 1>에서 평가 도구 작성 때 중요하게 고려한 음악 예술태도, 가치관의 문항들이 제거되었고, 음악 교과 태도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문항 47, 45, 48, 49는 음악 교과에 관한 긍정적 문항이고, 51, 52, 53번은 부정적 문항이며, 그 밖의 문항들도 교과 태도에 관한 문항이라는 것이다.

<표 6> 세 요인의 회전된 성분 행렬

문 항	요 인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X47	<u>.804</u>	.145	.102
X45	<u>.796</u>	.137	6.985E-02
X48	<u>.714</u>	6.908E-02	.134
X49	<u>.683</u>	.155	.108
X22	<u>.657</u>	-1.8E-02	.159
X46	<u>.656</u>	.166	4.681E-02
X53	<u>.628</u>	.240	-9.3E-04
X51	<u>.619</u>	.111	.130
X52	<u>.599</u>	6.708E-02	.183
X54	<u>.596</u>	.221	-6.3E-02
X23	<u>.567</u>	.135	.149
X44	<u>.558</u>	.176	.127
X8	3.923E-02	<u>.761</u>	5.667E-02
X9	6.159E-02	<u>.717</u>	3.647E-02
X7	.175	<u>.711</u>	7.469E-02
X5	9.564E-02	<u>.666</u>	.179
X10	.214	<u>.647</u>	.121
X57	.313	<u>.595</u>	7.493E-02
X11	.109	<u>.517</u>	.257
X56	.269	<u>.502</u>	8.548E-02
X33	-1.9E-02	8.552E-02	<u>.739</u>
X32	8.272E-02	.122	<u>.722</u>
X31	1.254E-02	.116	<u>.677</u>
X34	.155	8.593E-02	<u>.661</u>
X36	.189	2.018E-02	<u>.544</u>
X35	8.995E-02	.212	<u>.535</u>

따라서, 공유치가 낮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적절치 못한 요인수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세 요인 모형은 설명 변량이 낮고, 음악 태도 요인 안의 '음악 생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 구조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네 요인 모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3) 네 요인 모형

세 요인 모형의 타당도 검증 과정과 마찬가지로,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아이겐값과는 상관없이 4 개의 요인을 추출하도록 지정하였다. 초기 통계 분석에서 변인간의 선형 조합이 극히 약한, 공유치가 .3 이하의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5 이하)이나 요인간 상관 관계가 순수하지 못한 문항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아래 <표 7>의 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된 네 요인 모형의 전체 설명 변량은 54.731로 상승하였고, 요인별로는 <요인 1>이 약 28%, <요인 2>가 약 10%, <요인 3>이 약 9%, <요인 4>가 약 6%를 설명하고 있다.

<표 7> 네 요인 공유치 및 적재량

문항	공유치	*	요인	아이겐값	설명 변량값	누적 변량값
X45	.638	*	1	6.933	28.887	28.887
X47	.688	*	2	2.492	10.382	39.269
X48	.540	*	3	2.237	9.321	48.591
X49	.500	*	4	1.474	6.140	54.731
X46	.465	*				
X22	.452	*				
X51	.435	*				
X52	.419	*				
X53	.553	*				
X54	.506	*				
X5	.507	*				
X7	.572	*				
X8	.650	*				
X9	.556	*				
X10	.502	*				
X57	.417	*				
X31	.586	*				
X32	.664	*				
X33	.559	*				
X34	.505	*				
X64	.728	*				
X65	.689	*				
X66	.535	*				
X68	.470	*				

회전된 성분 행렬의 결과는 <표 8>과 같은데, 이 결과는 세 요인 모형과 마찬가지로, 요인 부하량이나 문항 순수도가 높은 편이었다. 산출된 요인을 개념화하기 위해 요인 명칭을 <요인 1>은 음악 교과 태도로, <요인 2>는 감정 민감성으로, <요인 3>은 음악 취향으로 <요인 4>는 음악 예술 태도로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세운 세 요인 중 음악 태도 요인이 이분(二分)된 상태로, 교과에 대한 태도와 예술 생활 태도를 태도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동일하게 간주한 전제를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든 통계치이다. 따라서, 설명 변량과 요인

<표 8> 네 요인 회전된 성분 행렬 분석

문항	요 인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요 인 4
X47	<u>.777</u>	.133	9.190E-02	.207
X45	<u>.743</u>	.139	5.222E-02	.252
X53	<u>.703</u>	.217	4.923E-02	-5.6E02
X48	<u>.683</u>	5.939E-02	.121	.202
X54	<u>.675</u>	.203	-9.0E-03	-7.7E-02
X49	<u>.658</u>	.144	.103	.187
X22	<u>.644</u>	-3.4E-02	.165	7.396E-02
X46	<u>.635</u>	.170	4.567E-02	.162
X51	<u>.562</u>	9.353E-02	.108	.308
X52	<u>.535</u>	2.243E-02	.152	.329
X8	3.209E-02	<u>.805</u>	6.544E-02	5.848E-02
X9	3.622E-02	<u>.744</u>	2.672E-02	.158
X7	.199	<u>.718</u>	.108	-3.5E-03
X5	.155	<u>.673</u>	.199	-4.5E-03
X10	.189	<u>.659</u>	.123	.120
X57	.345	<u>.534</u>	.107	4.707E-02
X33	-6.5E-02	8.891E-02	<u>.718</u>	.158
X32	-4.431E-02	.121	<u>.706</u>	.158
X31	-4.2E-02	.109	<u>.653</u>	.200
X34	.117	5.958E-02	<u>.639</u>	.213
X36	.249	1.434E-02	<u>.596</u>	-.138
X35	.106	.190	<u>.556</u>	-2.9E-02
X37	.247	2.408E-02	<u>.532</u>	-4.5E-02
X64	.247	-8.5E-02	.107	<u>.826</u>
X65	.253	5.238E-02	.207	<u>.746</u>
X66	.237	.143	.106	<u>.657</u>
X68	.183	.243	6.445E-03	<u>.589</u>

구조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하여 받아들일 만한 모델로 판단되지만, 다섯 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 후 가장 합리적인 모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섯 요인 모형

기본적으로 세 요인, 네 요인 모형의 타당성 검증 과정과 마찬가지로,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아이겐값과는 상관없이 5개 요인을 추출하도록 지정하였다. 초기 통계 분석에서 공유치가 .3 이하의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5이하)이나 요인간 상관 관계가 순수하지 못한 문항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아래 <표 9>의 결과를 얻었다. 공유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셋, 넷 요인보다 공유치가 높아져서 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설명 변량 및 누적 변량값도 개선되었다.

<표 10> 다섯 요인 공유치 및 적재량

문항	공유치	*	요인	아이겐값	설명 변량값	누적 변량값
X45	.742	*	1	7.809	16.569	16.569
X47	.705	*	2	2.436	11.328	27.897
X48	.554	*	3	2.242	10.980	38.877
X22	.482	*	4	1.635	9.985	48.862
X46	.510	*	5	1.173	9.967	58.829
X44	.538	*				
X49	.472	*				
X24	.507	*				
X8	.621	*				
X7	.597	*				
X5	.520	*				
X10	.545	*				
X57	.601	*				
X59	.592	*				
X68	.472	*				
X65	.602	*				
X64	.637	*				
X60	.544	*				
X61	.571	*				
X55	.735	*				
X54	.755	*				
X53	.712	*				
X32	.626	*				
X31	.560	*				
X34	.577	*				
X33	.516	*				

총 누적변량값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8.829이며, 요인별로는 <요인 1>이 약 16%, <요인 2>가 약 11%, <요인 3>이 약 10%, <요인 4>가 약 9% 이며,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약 9%를 설명하였다.

<표 11>의 회전된 성분 행렬에 의한 결과를 보면, 앞의 두 모형과 마찬가지로 문항 재구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인 부하량, 요인 문항의 순수성 등은 높은 편이다. 선출된 요인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요인 명칭을 <요인 1>은 음악 교과 태도로, <요인 2>는 감정 민감성으로, <요인

<표 11> 다섯 요인의 회전된 성분 행렬

문항	요 인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요 인 4	요 인 5
X45	<u>.808</u>	.162	.199	.149	1.864E-02
X47	<u>.764</u>	.139	.196	.244	6.001E-02
X48	<u>.691</u>	8.021E-02	.204	.154	7.765E-02
X22	<u>.644</u>	2.788E-02	2.216E-02	.214	.142
X46	<u>.632</u>	.181	.173	.219	-5.0E-03
X44	<u>.616</u>	.188	.332	-.107	3.580E-02
X49	<u>.579</u>	.147	.187	.270	8.530E-02
X24	<u>.520</u>	-4.2E-02	.145	9.509E-02	.452
X8	9.863E-02	<u>.775</u>	5.478E-02	-9.1E-02	9.704E-02
X7	.119	<u>.733</u>	.142	.152	4.472E-02
X5	5.253E-02	<u>.687</u>	.109	.111	.144
X10	.236	<u>.680</u>	9.583E-02	3.233E-02	.128
X57	2.294E-02	<u>.579</u>	.358	.200	3.732E-02
X59	.161	.228	<u>.650</u>	.273	.129
X68	.204	.104	<u>.645</u>	-3.1E-02	5.301E-02
X65	.317	-9.4E-02	<u>.634</u>	1.038E-02	.300
X64	.374	-.195	<u>.591</u>	-.237	.231
X60	.158	.369	<u>.576</u>	.225	3.823E-03
X61	.273	.398	<u>.556</u>	.160	5.556E-02
X55	.215	.145	-4.02E-03	<u>.819</u>	2.366E-02
X54	.311	6.885E-02	.106	<u>.801</u>	2.654E-03
X53	.365	.112	.120	<u>.742</u>	3.956E-02
X32	9.113E-02	.134	6.874E-02	3.066E-02	<u>.771</u>
X31	9.505E-02	.106	.117	1.323E-02	<u>.731</u>
X34	.133	2.040E-02	8.425E-02	.139	<u>.730</u>
X33	2.950E-02	.160	6.706E-02	-.126	<u>.685</u>

3)은 음악 취향으로, 그리고 <요인 4>는 음악 예술 태도, <요인 5>는 음악 교과 부정적 태도로 부여하였다. 특히, 다섯 요인 모형에서는 음악 교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관한 문항인 53, 54, 55번 세 문항이 따로 하나의 요인을 형성했으며, 요인 부하량도 .819, .801, .742로 다른 요인들의 부하량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넷 요인 모형과는 달리, 음악 교과에 대한 태도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분(二分)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무리가 따르며, 요인 분석의 기본 정신인 개념의 단순화·최소화의 원칙에도 벗어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세 요인 모형은 설명 변량과 요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다섯 요인 모형은 요인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아 음악교육에서 정의적 반응을 위한 잠재적 요인으로서는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교과 태도, 음악 예술 향수의 네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과

1. 구성 타당도

이 분석 과정과 결과는 정의적 반응에 대한 평가 도구의 바람직한 요인 구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평가 도구의 이론적 잠재 요인으로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 세 요인 설정이 타당한가 또는 다른 요인이 더 필요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요인 모형을 가정하고, 비교 모델로써 네 요인과 다섯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 방법(PCA)에, 베리맥스(Varimax) 직교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는 물론, 기초 상관 행렬, 스크리 도표, 요인 점수를 참고하였고, 셋, 넷, 다섯 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정리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모형으로 각기 분석하였을 때, 감정 민감성 요인과 음악 취향 요인은 변화가 없는데, 음악 태도 요인이 각기 모형마다 달리 나타난다. 세 요인 분석에서는 음악 생활 태도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네 요인에서는 교과 태도와 생활 태도로 나뉘었고, 다섯 요인에서는 교과 태도, 생활 태도, 교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나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세 요인 모형의 경우, 설명 누적 변량이 낮은 것과 음악 생활 태도 개념이 빠진 경우가 문제가 되고, 다섯 요인 모형에서는 교과 부정적 태도가 하나의 독립된 요인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섯 개 요인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문항 70, 71 번이 또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는데, 그 문항들은 음악 생활 태도에 관한 것으로 별개의 요인으로 두는 데에는 다섯 요인 모형과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 또, 아이겐값 1.0 이상의 요인으로 회전시킨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에서도 설명 변량값이 큰 순서로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정의적 반응의 평가를 위한 요인으로서 구성은 네 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과 요인과 생활 요인을 음악 태도라는 하나의 요인 안에 포함시킨 연구자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생활 요인을 독립된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위를 제공하였다. 음악 생활 태도라고 칭한 이 네 번째 요인에 대하여 '음악 예술 향수'라는 요인 명을 붙였고, 정의적 반응의 평가를 위한 요인으로 감정 민감성, 음악 교과 태도, 음악 취향, 음악 예술 향수를 포함 시켰다. 네 요인의 요인 분석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표 13>와 같으며, 여기에서 추출된 문항들이 새로운 평가 도구로 재구성된다.

<표 12> 셋, 넷, 다섯 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 정리표

모형	설명누적변량	총문항수	요인명	특징
세 요인 모형	46.221	27	1요인 : 음악 교과 태도 2요인 : 감정 민감성 3요인 : 음악 취향	설명누적 변량이 50% 이하임. 음악생활태도 문항이 전체적으로 빠짐
네 요인 모형	54.731	27	1요인 : 음악 교과 태도 2요인 : 감정 민감성 3요인 : 음악 예술 향수 4요인 : 음악 취향	설명 누적 변량이 세 요인에 비해 많이 개선됨. 음악 태도요인이 교과 태도와 생활 태도로 이분(二分)됨.
다섯 요인 모형	58.829	26	1요인 : 음악 교과 태도 2요인 : 감정 민감성 3요인 : 음악 예술 향수 4요인 : 교과 부정적 태도 5요인 : 음악 취향	설명 누적 변량이 두 요인에 비해 높음. 음악 태도요인이 교과 태도, 생활 태도, 교과 부정적 태도로 삼분(三分)됨.

<표 13> 구성 타당도 검정을 위한 요인 분석 결과

설문 문항(번수)	요 인 (Factor)				공유치 (h ²)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음악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X47	.771	.133	9.190E-02	.207	.673

설문 문항(변수)		요 인 (Factor)				공유치 (h ²)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음악시간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음악시간을 기대한다	X45	<u>.743</u>	.139	5.222E-02	.252	.638
가능하다면, 음악 수업을 안 받고 싶다	X53	<u>.703</u>	.217	4.923E-02	-5.6E-02	.547
다른 수업들 중에서 음악 시간이 가장 좋다	X48	<u>.683</u>	5.939E-02	.121	.202	.525
나는 음악 시간동안 즐겁지 않다	X54	<u>.675</u>	.203	-9.0E-03	-7.7E-02	.503
나는 음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다	X49	<u>.658</u>	.144	.103	.187	.500
나는 교과목으로서 음악을 좋아한다	X22	<u>.644</u>	-3.4E-02	.165	7.396E-02	.448
내가 느끼기에 음악 시간은 다른 수업시간 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X46	<u>.635</u>	.170	4.567E-02	.162	.460
나는 음악 성적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X51	<u>.562</u>	9.353E-02	.108	.308	.431
나는 교과목 중에서 음악이 중요한 교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X52	<u>.535</u>	2.243E-02	.152	.329	.418
음악을 들을 때 가끔씩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낀다	X8	3.209E-0 2	<u>.803</u>	6.544E-02	5.848E-02	.656
음악을 들을 때 가끔씩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X9	3.622E-0 2	<u>.744</u>	2.672E-02	.158	.580
음악을 들을 때 가끔씩 음악에 푹 빠져 드 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X7	.199	<u>.718</u>	.108	-3.5E-03	.566
어떤 곡들은 옛날의 즐겁던 기억을 떠올리 게 하여 나를 행복하게 한다	X5	.115	<u>.673</u>	.199	-4.5E-03	.506
음악을 들을 때 기쁨의 환희를 느낀 적이 있다	X10	.189	<u>.659</u>	.123	.120	.500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는 힘을 가지 고 있는 것 같다	X57	.345	<u>.534</u>	.107	4.707E-02	.418
서양악기 중에서, 트럼펫이나 트럼본 같은 금관악기를 좋아한다	X33	-6.5E-02	8.891E-02	<u>.718</u>	.158	.553
서양악기 중에서,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를 좋아한다	X32	4.431E-0 2	.121	<u>.706</u>	.158	.541
서양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 은 현악기를 좋아한다	X31	-4.2E-02	.109	<u>.653</u>	.200	.480

설문 문항(변수)		요 인 (Factor)				공유치 (h ²)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서양악기 중에서,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전반악기를 좋아한다	X34	.117	5.958E-02	<u>.639</u>	.213	.470
한국 전통악기 중에서, 단소나 피리 같 은 목관악기를 좋아한다	X36	.249	1.434E-02	<u>.596</u>	-.138	.437
서양악기 중에서, 드럼이나 실로폰 같은 타악기를 좋아한다	X35	.106	.190	<u>.556</u>	-2.9E-02	.427
한국 전통악기 중에서, 장고나 소고 같 은 타악기를 좋아한다	X37	.247	2.408E-02	<u>.532</u>	-4.5E-02	.413
나는 음악회에 자주 가는 편이다	X64	.167	-8.5E-02	.107	<u>.826</u>	.728
나는 음악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X65	.253	5.238E-02	.207	<u>.746</u>	.666
내가 음악회에 갈 때면, 일반적으로 나 는 바른 자세로 관람한다	X66	.237	.143	.106	<u>.657</u>	.519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의 노래나 작품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X68	.183	.243	6.445E-03	<u>.589</u>	.439
고유치(Eigenvalue)		6.933	2.492	2.237	1.474	
설 명 변 량		28.887	10.382	9.391	6.140	
요 인 명		음악교과 태도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예술 향수	

2. 내용 타당성

작성된 74 문항이 연구자가 분류한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 세 요인에 근거하여 각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즉 연구자 요인 분류가 적절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네 요소 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분류와 요인 분석 분류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 문항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내용 타당성 분석 결과표

문항	내 용	연구자 요인 분류	통계치 요인 분류
22	나는 음악교과로서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 취향	음악 교과 태도
23	음악수업에서 가창(노래부르기) 시간이 좋다	음악 취향	음악 교과 태도
24	음악수업에서 악기 연주하는 시간이 좋다	음악 취향	음악 교과 태도
56	인류에게 있어 음악은 중요한 문화 유산 중의 하나이다	음악 태도	감정 민감성
57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음악 태도	감정 민감성

설문지 문항 작성에 있어, 좋아함/좋아하지 않음, 또는 취사 선택으로 여러 개 중 이것을 선호함 등에 근거하여 음악 취향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로서 음악을 좋아함, 또는 음악 활동 중 가창, 기악, 감상 어느 활동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물음을 음악 취향에 분류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문항들 중 22, 23, 24 문항은 음악 교과 태도로 분류되었다. 또한, 56, 57번과 같이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판단된 문항들이 감정 민감성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문항 외에 59(음악은 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60(음악은 나와 다른, 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61(음악활동을 같이 함으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문항도 감정 민감성으로 분류되어 감정이라는 부분과 가치·태도라는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정의적 영역의 개념 정의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이론적 근거에 의한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좋은 문항이라고 판단했던 문항들, 예를 들어 56, 59, 60, 61 문항 등이 요인 분석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가 무의미하게 나온 것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몇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은 거의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2. 요인별 신뢰도

신뢰도 혹은 평가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재측정법(Retest Method), 대체 형태법(Alternative-Form Method), 항목이분할법(Split-Halves Method),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측정 문항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둔 내적 일관성법

이고, 이는 크론바하 알파로 나타난다. 구성 타당도 점증으로 결정한 네 요인(음악 교과 태도,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예술 생활 향수)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 계수(Alpha : α)는 각기 .88, .82, .78, .70 으로 <표 15>와 같다.

<표 15> 요인별 신뢰도

요 인	요인 1 (음악 교과 태도)	요인 2 (감정 민감성)	요인 3 (음악 취향)	요인 4 (음악 예술 향수)
신뢰도	.88	.82	.78	.70

따라서, 이 측정 문항들은 내적으로 일치된 개념을 갖고 있으며, 신뢰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3. 평가 도구 유용성

유용성은 평가 도구에서 실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룬룬드(Gronlund)는 유용성의 성격을 다음의 6 가지로 규정하는데,³³⁾ 첫째, 실시 방법이 쉬워야 하고, 둘째, 실시 시간이 적당해야 하며, 셋째, 점수화 하는 방법이 쉬워야 한다. 넷째, 결과 해석이 쉬워야 하고, 다섯째, 적용이 쉬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변환이나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네 요인 모형의 요인 분석에 의해 추출된 27 문항에 대하여 대학의 평가 전문가와 음악 교육 전공 교수 10 명에 의뢰하여 유용성에 관한 6 개 중 5 개 항목(첫째~다섯째)에 대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여섯 번째 항목은 비교 대상이나 변환할 대상 평가 도구가 없는 관계로 생략하였다.

- (1) 실시 방법에 있어, 교사나 재교육기관의 운영자와 같은 평가자 입장에서 이 도구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반면, 초등학교 4 학년의 경우, 문항 자체의 단어 사용이 그들 수준보다 조금 높거나 뜻이 불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2) 실시 시간에 있어, 이 평가 도구는 약 10 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도구로서 적절한 시간이라고 평하였다.
- (3) 점수화 방법에 있어, 부정적 진술 문항(53, 54)은 답한 번호와 거꾸로 점수화 하는데, 예를 들어 1 매우 그렇지 않다에 답한 경우, 5로 점수화 하고, 다른 긍정적인 문항은

33) N. E. Gronlund,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teaching, 5th ed., New York: MacMillan, 1973.

답한 번호에 그대로 점수화 한 다음 총점을 내서 결과로 활용한다. 이 때, 취향에 관한 문항은 총점에서 제외시키며, 음악 취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점수 매기는 부분에 있어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수작업도 가능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총점에 의한 우열보다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각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적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엑셀 프로그램이나 SPSS 프로그램 등의 사용으로 더 많은 목적과 종류의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 (4) 결과 해석에 있어, 위의 (3)에서와 같이 결과 해석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각 요인에 대한 총점과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결과 해석을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 (5) 이 평가 도구에 대한 결과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다른 인지·심동적 영역의 평가와 함께 교육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음악교육 전문가들은 음악 취향 요인에 악기 취향의 결과만으로 고전음악/대중음악, 서양음악/한국음악 등의 취향을 알아보는 것이 부족하다고 제언하면서,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이 요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 문항을 추가하기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취향 요인에 대한 문항 개발이 더 필요하다.

V. 요약 및 논의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대한 성취 결과의 이해와 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와 중요성의 인식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음악 정의적 영역의 한 부분인 정의적 반응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언어 측정 방법인 설문지를 이용한 '정의적 반응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그 요인 구성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 먼저, 평가 도구는 정의적 반응에 대한 연구자 정의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에서 정의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들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 문항들은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태도의 세 요인으로 산출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때, 평가 도구로서의 요인 설정이 타당하였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세 요인 모형과 대안적인 모형(네 요인, 다섯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다음, 각각 산출된 결과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요인 모형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음악 교과 태도, 감정 민감성, 음악 취향, 음악 예술 향수의 네 요인이 음악 정의적 반응 평가를 위한 요인 모형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내용 타당성에 대한 연구 문제를 위하여, 연구자 요인 분류와 네 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요인 분류를 비교하였고, 또, 네 요인 모형에 의해 재구성된 평가 도구의 신뢰도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에서 정의적 반응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의 편이성, 적용성, 간편성 등의 평가 도구 유용성에 대하여 평가 전문가들과 음악교육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음악 태도라는 요인 안에 음악 교과 태도와 음악 예술 태도를 같은 요인으로 가정하였으나, 요인 분석 결과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음악 예술 태도'라는 요인 명보다는 '음악 예술 향수'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었고, 음악 교과 태도와 음악 예술 태도, 즉 음악 교과에 긍정적이고 열심인 태도와 음악 예술을 향수하는 것과는 상관 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음악 교과에 대한 태도가 예술 생활을 즐기는 어떤 가치관이나 취향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음악 교사들은 음악 교과 지도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술 생활 향수를 위한 지도 방법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음악 교과에서 인지적·심동적 영역의 평가만으로 교과 성취도를 평가해서는 온전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문항들의 요인 분류에 있어, 음악 취향에 관한 문항이라고 연구자는 이론적으로 판단하였지만, 분석 결과에서 몇 문항은 음악 교과 태도로 분류되었고,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던 문항들이 감정 민감성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감정이라는 부분과 가치·태도라는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앞에서 언급했던 정의적 영역의 개념 분류가 어렵다는 증거이며, 연구자들의 이론적 근거에 의한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음악 정의적 영역 안의 한 부분인 '정의적 반응에 대한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미적 반응에 대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정의적 영역의 목표 성취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들과 방법들을 찾아내는 등 음악교육에서 바람직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양병화.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학지사. 1998.
- Abeles, H. F. & Chung, J. W. "Responses to music".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2nd. Lawrence, K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1996.
- _____. "Responses to music". In D. A. Hodges(ed.).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Lawrence, K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1980.
- Aitchison, Randall. "Student perceptions and preferences in multiple criteria evaluation systems".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20. 1993.
- Bartlett, D. L. "Effect of Repeated Listening on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Affective Respons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4). 1973.
- Bullock, W. J. "A Review for Measures of Musico-Aesthetic Attitud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4). 1973.
- Capurso, A. "The Capurso study". In Music and your emotions. New York: Liverright Publishing. 1952.
- Cutietta, R. A.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nd preferences in music education". In Richard Colwell(ed.).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Schirmer Books. 1992.
- Eagle Jr, C. T. Effects of existing mood responses to that mus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Kansas. 1971.
- Farnsworth, P. R. "A Study of the Hevner adjective list".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12. 1954.
- Gronlund, N. 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teaching. 5th ed. New York: MacMillan. 1973.
- Heinlein, C. P. "The affective characters of the major and minor modes in music". The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8. 1928.

- Hevner, K. "Expression in music: A discussion of experimental studies and theories". Psychological Review. 42. 1935.
- _____. "Experimental studies of the elements of expression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8. 1936.
- _____. "The affective value of pitch and tempo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9. 1937.
- Krawthowal, R. & Bloom, S. & Masia, B.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s: Affective domain. N.Y.: Longman. 1964.
- Kuhn, T. L. Instrumentation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ollege Music Society. San Antonio. Texas. 1979.
- Lychner, J. A. "An empirical study concerning terminology relating to aesthetic response to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2). 1998.
- MacCallum, R. "A comparison of factor analysis programs in SPSS, BMDP, and SAS". Psychometrika. 48. 1983.
- McMullen, P. T. "The musical experience and affective/aesthetic respons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2nd. Lawrence. KS: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1996.
- Meyer, L.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 Miller, R. F. "Affective response". In R. Colwell(Ed.).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Schirmer Books. 1992.
- Misenhelter, D. & Lychner, J. A. "A Comparative Study of Aesthetic Response: Erik Satie's Trois Gymnopedies and Frederic Chopin's Ballade in A-flat".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24(2). 1997.
- Murphy, M. K. & Brown, T. S. "A comparison of preferences for instructional objective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 1986.
- Radocy, Rudolf E. & Boyle, J. David.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3rd. Springfieldl. Il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1997.

- Schoen, M. & Gatewood, E. L.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nature of musical enjoyment". In M. Schoen(ed.). The effects of music. New York: Harcourt. Brace. 1927.
- Sopchak, A. L.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s to different types of music. in relation to sex, mood, and other variables". Psychological Monographs. 69(11). 1955.
- Swanwick, Keith. "Musical Cognition and Aesthetic Response".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6(93). 1973.
- Van Stone, J. K. "The effects of instrumental tone quality upon mood response to music". In E. Schneider (ed.). Music therapy. 1959. Lawrence. KS: Allen Press. 1960.

ABSTRACT

The Construct Validity of an Assessment Instrument for Musical Affective Responses

Kim, Hyang-joung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al growth in students' affective domain comprise a critical element of musical performance and thus ask for immediate attention from scholars and instructors alik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based on self-reported questionnaire to measure affective response which is one of the affective domains. The present instrument was constructed by conceptually integrating various types of music affective responses in music educational settings identified by existing studies. Each of the items was classified into one of three factors (Emotional Sensitivity, Musical Taste, Musical Attitude). To test the construct validity of this instru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performed to verify the researcher's three factors model and alternative models (4, 5 factors), and model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four factors model including Music Subject Attitude, Musical Sensitivity, Musical Taste, Musical Art Appreciation, offers the best explanation of the empirical patterns observed in the data.

To verify the content validity of the factors, the scale items identified from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mpared with the researcher's initial classification. In addition, the coefficient alpha formula was used to assess reliabilities of the four scales as identified above. Finally, the usability of the ease of administration, the amount of time required for administration, the ease of scoring and ease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was assessed through a review by a panel of university faculty members, who were experts in educational measurement and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offers several implications for music educators and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affective responses in music education

classes. While the researcher initially hypothesized that music subject attitude and musical art attitude would comprise a single facto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y were empirically separate from each other. This finding suggest that it would be more suitable to renace musical art attitude as musical art appreciation. According to the present result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ttitude and art appreciation - that is, enthusiastic and positive attitude in music classes was not related to musical art values and positive musical taste. Music educators, therefore, should reconsider teaching methods to increase musical art appreciation that seems relatively independent from students' attitudes toward music classes. This pattern provides an empirical support for educators' and researchers' arguments that evaluations in cognitive and psycho-motor areas a complete assessment for students' musical ability toward the goals and objectives of music education.

In assessing the content validity of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some items that had been conceptually developed to assess Musical Taste were empirically classified as items for Music Subject Attitude. In addition, some items designed to measure Musical Attitude turned out to indicate Musical Sensitiv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istinction or boundary between emotion and attitude/values might be vague. Unlike theoretical differentiations, it is difficult, of not impossible, to make precise empirical differentiation between emotion and attitude or emotion and cognition.

The present study has developed an assessment tool for affective responses. Future research endeavors might be directed at developing an assessment tool for aesthetic responses studies related to. Researchers also should pursue desirable methods and factors which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high levels of affective performance among students.

주제어 : 검사, 음악평가, 정의적 영역